코로나 이긴 149명 부루나존자 탄생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4월4일 첫 졸업식 거행

2020년 개원 후 첫 성과
코로나로 인한 이탈에도
도심포교도량 모범 역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은 4월 4일 여래선원 법당에서 '여여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이 첫 졸업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졸업생 149명을 배출했다.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 이하 여여불교대학)은 4월 4일 여래선원 법당에서 '여여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회주 정여 스님, 학장 효산 스님을 비롯해 방수정 선정차문화원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발원문 낭독, 학사보고와 법문, 졸업증 수여, 상장 수여, 꽃다발 증정,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회주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코로나19로 혼탁한 말법 시대에 좋은 성과를 보여준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여래선원이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학장 효산 스님은 "2020년 선원 개원 후 수행과 포교 원력을 중심으로 노력했다"며 "정법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고 감사를 전했다.

방수정 선정차문화원장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돌이켜 보며 다시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함께 하는 도반과의 여정은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여불교대학은 올해 첫 졸업생으로 149명을 배출했다. 여여불교대학은 코로나 발생 전 수강등록인원이 349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모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여불교대학의 성공요인은 '폭 넓고 신선한 프로그램'과 '접근성', '편안한 도량' 등이 꼽힌다. 여래선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심도 깊은 불교경전 강의뿐만 아니라 경주 남산 탐사, 출가학교, 불교인문학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학장 효산 스님의 유튜브 강의 등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도 했다.

효산 스님은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원이 중도 포기를 했다"며 "하지만 실속 있는 비대면 강의를 준비해 오늘의 졸업생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여불교대학은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부산 연산동 도심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도 퇴근 후 편안히 찾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편안한 도량 분위기도 인기에 한몫했다. 여래선원 입구에 갤러리 북카페 소소(昭昭)를 운영해 불자가 아니어도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효산 스님은 "갖고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해 수행과 전법의 도량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여불교대학은 불교대학 2기 입학생을 접수받고 있으며, 250여 명이 등록한 상황이다. 입학식은 4월 11일 법당에서 봉행됐다.

김해 바라밀선원, 증축 기념법회 개최

가야불교 재건 도심포교당 발원


김해 바라밀선원은 4월 3일 경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증축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4월 3일 경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증축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총무국장 종현 스님, 호법국장 천주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및 경남지역단 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금관가야 김해에 자리한 도량이 앞으로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고 정진하는 거점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인해 스님은 "앞으로도 바라밀선원은 가야불교의 중흥을 위해 앞장서고 포교도량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바라밀선원은 동참한 불자들을 대표해 김종환 불자에게 방장 성파 스님이 직접 쓴 족자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바라밀선원은 2013년 김해 내동 상가건물에서 개원한 이후 2017년 현재 위치인 김해시 구지로로 이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성주사·한마음병원 MOU 체결


창원 성주사는 4월 2일 창원 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4월 2일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창원 성주사와 한마음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불교문화 체험과 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홍보키로 했다.

성주사는 병원 직원 및 가족들의 템플스테이 참가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창원 한마음병원은 성주사 신도들의 외래진료와 입원 등 비급여 항목 할인, 건강검진 할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식에는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법안 스님은 "불모산 성주사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힐링 공간으로 열려있으며 언제나 환영한다"며 "성주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은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며 "성주사 신도들과 한마음병원이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원효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봉행


해동원효장학회는 4월 7일 해동고 교내 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해동원효장학회(회장 원광)는 4월 7일 해동고 교내 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해동고등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진행됐으며, 재학생 15명(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해동원효장학회장 원광 스님(정수사), 총무 자인 스님(길상사), 이사 지용 스님(장흥사), 감사 대원 스님(금불사)이 참석했다.

장학회장 원광 스님은 "여러분이 성장해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때 부처님 말씀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등불과 이정표와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수길 해동고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도 변함없이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2008년 출범했다. 장학회 회원 17명의 스님들이 학생 한 명을 지정해 지원하는 장학회로 시작됐다. 현재 약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년고찰 산청 내원사 '덕산사' 이름 되찾아

경남 산청 지리산 내원사가 기와 등 실증 자료의 발견으로 1360여 년 전 이름인 덕산사로 변경됐다.

산청군은 삼장면 대포리 장당계곡에 있는 산청 내원사가 조계종 승인을 거쳐 덕산사로 전통사찰 명칭을 변경 등록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덕산사는 신라 무열왕 4년(657)에 원효 대사가 처음 세웠다. 1000여 년이 지난 조선 광해군 1년(1609)에 원인 모를 화재로 절터만 남기고 전소됐다. 이후 1959년 원경 스님이 절을 다시 세우고 내원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문헌 기록 외에 기존의 내원사가 덕산사의 자리에 세워진 것을 실증하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내원사는 본명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웅전의 위치 고증을 위한 시굴 조사에서 덕산사의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가 발굴돼 비로소 내원사가 덕산사 터에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

산청군과 내원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칭 되찾기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중순 조계종이 사찰명을 덕산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법성사, 창건주 법성보살 기려

4월 4일 대광명전에서 추모법회


창녕 법성사는 4월 4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법성보살 열반16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관음종 창녕 법성사(주지 법명)는 4월 4일 대광명전에서 '법성보살 열반16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추모법회는 △상단예불 △법성보살 전 삼배 △비로자나불 십신불 봉독 △상축 △헌다 및 헌화 △법성보살 생전 육성법문 청취 △법어 △인사말 △추모곡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진주 불명사), 부산 무문홍법사 호명 스님,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 대구 모은정사 학림 스님 등 스님들과 이경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법성보살은 관음보살이자 비로자나불 기도도량인 법성사를 창건한 대보살이셨다"며 "그 뒤를 따라 우리들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포교사가 되자"고 법문했다.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모이기 힘든 시점이지만 함께하고 동참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린다"며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바른 신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법성사는 1985년 3월 덕오당 법성보살이 창건했다. 법성보살은 1928년 5월 26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 1리에서 3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유년 시절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다 1958년 10월 영축산 기도로 병고서 벗어나는 가피를 얻었다고 한다. 그후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을 세워 비로자나불 기도를 정진, 창녕 영축산 청련사를 중창불사했다. 이후 법성사를 창건했고 1996년 3월 10일 법성사 관음전 맞은편 대광명전을 낙성했다. 법성보살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청도 약사사를 중창불사하고, 1993년 7월 조계종 청련사 다보탑과 비로자나불 불상 조성, 1994년 10월 청도 대적사 산령각 신축, 1995년 5월 요사채 신축, 화장실 개축 등 불사를 이끌었다. 영천 육군 3사관학교 법당 신축불사에도 동참했으며 관음종 백운사 법당도 중창불사했다. 또 중생구제 사업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썼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